

미국의 TPP 탈퇴에 따른 한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연구 -베트남 시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s and the Impact of Korean Trade Policy after the US's withdrawal of TPP -Based on Vietnam Market-

김동호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Dong-Ho Kim(dhkym1@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시점에 미국의 TPP 탈퇴로 기존 TPP 협정 체결국 중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국 통상 정책의 변화와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한국은 자유무역과 자유경제 시장의 흐름으로 경제 성장과 발전에 많은 성과와 결과물을 이루어냈고 이후에도 통상으로 국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만 한다. 그러나 외부환경은 보호주의로 통상정책을 시행하려는 강대국이 많지만 정량적으로 경제의 기반을 무역에 두고 있어 자유무역주의를 더욱 발전시켜야할 위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무역 주의의 흐름이 계속되고, 세계화가 지속된다면 현재 진행 중이던 TPP가 미국의 탈퇴 이후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생산비용이 저렴한 국가를 활용한 공급망 구축이다. 둘째로 일본과 대미 수출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은 GVC를 활용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동남아 시장 전초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재의 생산과 판매 거점을 확보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 중심어 :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전략 | 한국통상정책 |

Abstract

This paper studied the changes and effects of Korean Trade Policies in Vietnam market after the withdrawal of the TPP from US. Since Trump government is starting, US trade policy has moved to the protectionism method. Nevertheless, Vietnam is expanding its status as an FTA hub, and Vietnam is actively expanding its economic growth by actively implementing foreign capital. Vietnam, however, is likely to lose its position as a hub of FTA after USA's withdrawal from TPP member. So, Korea's trade policy is also expected to change its stance on Vietnam, and Korea is expected to change its policy toward Vietnam. Korea has achieved a lot of accomplishments and growth with free trade and free economic markets, and it has to strengthen its national strength even afterwards. Thus, if the flow of free trade & globalization continues, I would consider how the Korea trade policy change after the U.S.'s withdraws from TPP.

This paper focused on literature study. With the help of information technology.

■ keyword : | TPP | RCEP | Korea Trade Policy | Vietnam's Strategy of FTA |

* 본 연구는 2017년도 상명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7년 11월 20일

수정일자 : 2017년 12월 22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2월 28일

교신저자 : 김동호, e-mail : dhkym1@naver.com

I. 서론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은 지역 내에서 생산 활동과 소비 등의 관점에서 연관성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고 경제협력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 중 한국, 중국, 일본 등은 FTA의 양자 협상 틀에서 벗어나 조금씩 메가 FTA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하나는 중국을 중심으로 준비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으로서 동남아시아 10개국과 한, 중, 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2012년 11월 20일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최종 타결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는 협정이다. 또 다른 하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으로서 미국을 포함한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일본 등 12개국이 2015년 10월에 큰 현안들은 합의하였고 2016년 2월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참가국 모두 서명한 메가 FTA 협정이다.

RCEP은 지역내 국가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을 추구하고 있다[1]. 반면에 TPP는 높은 수준의 개방이 포함된 포괄적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어 RCEP과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 메가 FTA 협정은 아시아와 태평양 각국의 무역정책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향후 변화할 통상정책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7년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자유무역 우선에서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으로 정책 변화가 있었고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TPP 탈퇴에 서명함으로써 TPP 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의 통상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특히 베트남은 TPP와 RCEP 등 두 메가 FTA에 동시 가입할 가능성이 매우 큰 나라로서 FTA 허브국가로 입지를 넓혀 국가의 중심이 외자에 의한 통상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중에 있고 이 정책에 힘입어 국민 소득 증가 등 경제규모가 급격히 성장세를 달리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베트남은 미국의 TPP 탈퇴 서명으로 FTA 허브 국가로서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한국도 제3위의 무역거대국인 베트남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이다.

한국의 외부환경은 보호주의로 통상정책을 시행하려는 강대국이 많지만 정량적으로 경제의 기반을 무역에 두고 있어 자유무역주의를 더욱 발전시켜야할 위치에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주의의 흐름이 계속되고, 세계화가 지속된다면 현재 진행 중이던 TPP가 미국의 탈퇴 이후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의 수출 3위 무역국인 베트남에 대한 무역정책의 변화와 그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고는 TPP 관련 분석적인 내용과 전체적인 시각보다는 국제 통상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실무적 관점에서 연구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TPP와 RCEP 협정의 변화

동아시아권은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등의 강대국이 지역 구도의 헤게모니를 두고 다투는 세력 간의 균형과 불균형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의 어느 국가가 타 국가와 FTA를 체결한다면 그 연쇄반응이 일어나 FTA체결이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한·미 FTA는 이런 FTA체결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그런 관점에서 TPP와 RCEP은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양진영 간의 참여 세력을 늘려 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TPP 혹은 RCEP보다 낮은 수준의 FTA로 통합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2]. 그러나 양진영은 각 진영의 특성, 즉 TPP는 자유무역과 자본주의에 충실한 미국 주도로 규제 완화와 미국 중심적 사고를 보편화하여야 하는 것과 RCEP은 참가국의 정치와 경제적 특성, 국가 규모 등이 다양하여 시장접근의 방법과 각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양진영 간의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RCEP은 장차 미국 시장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시장구

모나, 인도의 잠재력,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세안의 전략 등으로 역내 가치사슬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그 경제적 유인력은 무시 못 할 것이다.

RCEP과 TPP에 동시적으로 참가하는 국가는 7개국(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일본)이며 한국을 비롯한 여러 RCEP 참가국도 TPP 참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RCEP, TPP 두 진영의 관계는 서로 보완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1].

그러나 미국의 TPP 탈퇴로 TPP 진영의 변수가 발생하였고 RCEP도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뉴질랜드, 일본 등 2개국과 부정적인 베트남, 중도적 입장인 중국, 호주, 인도 등의 국가 간 입장차이가 큰 것을 고려한다면 RCEP도 기준 방침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3].

2.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황기식·박선화(2016)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따른 대 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 변화”의 논문에서 TPP는 베트남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인 요인과 제도 발전에 대한 연구로 TPP 협정 타결 이후의 변화에 대해 논하였다.

강철승·이정기(2015)는 “한국의 TPP 가입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의 논문에서 한국의 양자간 FTA의 시각에서 광역 경제통합 시대로의 진출을 역설하며 무역거래의 거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TPP 참여에 대한 정책적 제안 및 올바른 정책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윤영호·정진섭·이형석(2016)은 논문 “지역에 따른 한국의 TPP 가입효과”에서 한국의 무역 투자, 중간재 생산, 교역 등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한국의 TPP 가입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논문으로 한국의 TPP 가입에 따른 (+)효과에 대해 논하였다. 오동윤·이찬우(2016)은 “중소기업의 한·베트남 FTA 활용을 위한 전략품목”에서 최근 가장 유망한 지역으로 떠오르는 베트남에 대해 중국의 대체 생산지로서 역할과 한국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전략적 품목에 대해 연

구하였다. 이들 전략적 품목으로는 경쟁력이 있고 베트남에서 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품목 선정과 무역 구조상 공급가치 사슬에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정부 지원 하에 진행한다면 중소기업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결론을 맺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TPP와 관련, 영향력이 가장 높은 미국 변화와 연관된 연구는 없어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3. 메가 지역 협정에 따른 국제통상 정책의 변화

TPP 협정은 역내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과 기준이 설정되었다. 이를 상품규제에 대한 기준과 통관 절차 등 절차에 의한 기준 설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상품규제에 대한 기준은 역내 국가 간에 공동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역내 국가 간의 기준차이로 인해 통상 거래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 역내 국가 모두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러나 그 기준을 높게 설정한다면 규정의 통일로 효율성이 향상되어 서로가 윈윈하는 거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절차에 대한 기준은 상품 보다는 나라의 법적 특성에 따라 복잡하게 설정될 수 있는데 절차에 대한 기준이 높게 설정되면 생산성이 높은 선진국이 유리하게 된다. 그러나 그 기준이 낮다면 개도국 등은 낮은 생산 비용으로 요소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선진국 보다 절차상 이익이 선진국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4].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TPP는 상품규제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역내 국가들 사이에 윈윈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5].

따라서 이로 인한 통상 환경은 FTA 체결 진영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정부의 역할 감소와 함께 기업의 사업 범위가 넓어지고 강화되어 기업의 책임에 대한 역할이 강화 될 것이다[4]. 즉, 노동착취와 환경 파괴, 정부 지원 등의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생산 비용을 낮추는 방식은 정상적인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미국 등의 선진국은 피해를 볼 수 있어 이런 사항들을 최소화 하는데 TPP가 기여할 것이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 상태에서 인건비, 생산 비용 감소 등 요소비용 절감은 글

로별 가치사슬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생산 공급방식으로 진화할 것이다.

IT 산업의 발달로 IT에 의한 거래가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세계경제가 빠르게 통합되고 무역 장벽이 낮아져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는 확산되고 생산과 공급 가능한 국가의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된다. 즉, 전통산업과 미래산업 중 선택과 경쟁력 있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비관세 장벽 정책을 활용할지 장벽을 낮출 지를 결정하는 차별성 있는 정책 변화를 줄 수 있다.

또한 역내 국가들의 배타적 협력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은 노동, 시장, 자원, 자본, 기술 등 역내 국가의 특성에 맞게 설계, 보완이 가능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은 고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그 혜택이 많을 것이다.

TPP는 높은 개방성으로 공정한 경쟁 시장이 조성되어 기업의 적극적 해외 진출로 각 사업 영역별로 경쟁이 심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생존 위협을 받는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최종재 보다는 핵심 중간재 생산이 더욱 중요해 질 수밖에 없고 서비스 업종 등 국내 기반 산업들의 글로벌화는 가속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의 TPP 탈퇴로 일본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어 일본은 향후 추진되는 한·중·일 FTA 및 RCEP에 TPP 규정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3. FTA 측면에서의 글로벌 가치사슬

과거 생산 활동이 개별적인 BATCH SYSTEM처럼 독립적으로 행하여졌다면 현재는 모든 생산 활동이 Linear 하게 서로간의 연관성으로 투자, 통상거래, 서비스 등이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발전하여 글로벌화와 글로벌 가치사슬을 촉진하게 되었다[6].

글로벌 가치사슬은 국가 간의 자본, 기술, 노동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FTA의 중요성은 더해가고 있다. 그럼에 따라 FTA로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은 높이면서 기초 원자재, 중간재, 부품 등의 거래가 쉽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국내 산업과의 연관성도 더욱 높아졌다. 특히 TPP와 같은 메가 FTA는 경제대국을 포함하

고 있어 역내 국가 간의 비관세장벽완화와 낮은 수준의 관세 유지 등으로 시장 접근에 대한 효율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단일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누적조항, 롤업(Roll-Up) 조항 등의 활용을 통해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높이고 역내산 재료의 사용과 역내 가공을 촉진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의 활용도를 배가 시키고 있다[6].

따라서 TPP와 같은 메가 FTA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효율성이 높을수록 역내간의 통합이 가속화 되고 통합의 규모가 클수록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게 된다[7].

기업의 입장에서 FTA 등 무역 협정은 생산기지의 이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중 원산지 규정은 핵심적 이전사유가 된다. 또한 베트남과 같이 생산기지의 이전 대상국은 FTA를 통해 인프라 투자, 제도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으로 비교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을 가속화 할 것이다[8].

III. 베트남의 FTA 전략과 그 영향

1. 베트남의 메가 FTA 참여 전략

베트남은 도이모이 정책실시 후 시장경제와 대외 개방정책으로 외국 자본의 급속한 유입과 경제성장으로 2006년 12월 WTO에 1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점차 세계 경제에 편입되어 2010년 11월 TPP 참여를 공식 선언하게 된다.

베트남은 TPP 역내 국가 중 발전이 비교적 늦은 나라로 TPP 가입을 통해 경제성장과 국제무역거래 증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국가 개혁 등 국가 수준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여 타 국가와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였는데 이를 달성하려면 베트남은 더 세분화되고 투명성을 보장하며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은 노동, 환경, 투자, 지적 재산권 등 전반적인 시장 개방에 대한 조항이 담겨있는 FTA 협정문에 서명하는 등 동 협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9].

베트남은 TPP 가입국으로서 베트남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일본, 미국,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멕시코 등은 베트남의 수출 시장을 확대 시켜줄 교역국가가 될 것이다.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섬유류와 신발, 쌀, 어패류 등은 TPP를 통해 관세를 폐지하거나 낮추는 혜택을 입게 될 것이다. 특히 섬유 산업은 베트남이 크게 혜택을 볼 산업 중의 하나인데 이를 중심으로 외국 자본유입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또한 중국과 무역에서 베트남은 항상 적자였지만 TPP 체결로 무역상대국이 역내국으로 전환되면서 무역역전효과가 증가하여 중국과의 교역은 점차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베트남은 생산기지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전자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TPP, 유럽과의 FTA 체결 등 FTA 허브국가로서의 위상과 이를 통한 생산 허브로서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첨단 산업 위주의 산업 고도화로 정책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8].

베트남은 TPP 이외에도 RCEP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다자간의 교역을 활성화하고 교역 시장의 확대와 시장 다변화, 외국인 직접투자 적극 유치, 선진국의 기술 협력을 통한 기술 습득 방안 모색 등 베트남의 경제개혁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RCEP은 아세안을 모태로 하고 있어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베트남은 RCEP 주요 참여국과의 교역에서 2017년 9월 기준 총 수출액 1,543억불 중 39.5%, 총 수입액 1,539억불 중 70.3%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베트남 RECP 주요국 수출입 현황

국가	수출금액 (억불)	비중 (%)	증가율 (%)	수입금액 (억불)	비중 (%)	증가율 (%)
아세안	159	10.4	26.4	203	13.2	18
중국	222	14.4	47.1	417	27.1	16
일본	123	8	15.3	118	7.7	8.5
한국	106	6.9	27.5	344	22.3	48.6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2017년 9월 기준

RCEP의 참여 전략은 TPP와 같이 섬유산업의 도약과 첨단산업 유치로 첨단산업을 육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노이 근교는 전기, 전자 등 하이테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전기, 전자산업 특화지역으로 개발 중

이며 동 산업의 부품, 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투자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영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개혁,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정부의 개혁은 가속화 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 원자재의 33%를 수입하고 있어[10] 미국, 일본 등의 수출시장에서 원산지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RCEP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는 전략도 있다. 그럼으로써 일본 등 역내국으로 섬유를 수출하는데 수입 관세에 대한 특혜로 베트남의 섬유 산업은 여러 산업과 더불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다.

베트남은 TPP, RCEP, EU 등 메가 FTA를 체결했거나 준비 중에 있어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베트남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는 FTA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는데 중요한 촉진 수단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 중국 등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이들 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 될 것이고 베트남은 이를 활용한 교두보로서 부가 가치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

저렴한 인건비를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생산 공급사슬을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은 TPP, RCEP을 통해 더욱 효과가 증가할 것이고 베트남은 그 중심에 있을 것이다.

2. 미국의 TPP 탈퇴가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

베트남 경제에 많은 이점을 줄 수 있는 TPP는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의 TPP 탈퇴 서명으로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의 수출 주도형 국가 전환을 위해 투자환경 개선과 기존에 체결한 다수 국가와의 자유무역 협정, 저렴한 인건비 등 강점을 이용한 외국인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7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54.8% 증가한 192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신규 투자건수는 3.3% 증가한 1,183건이 투자 되었다.

표 2. 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단위:건, 백만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1-6)
신규투자건수	1,530	1,588	2,013	2,556	1,183
총투자금액	22,352	20,231	22,760	24,372	19,229

자료원: tradingeconomics.com / 베트남 외국인 투자청(2017.7월 기준)

외국인 직접 투자의 증가는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써 베트남 경제 성장의 중심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있다.

베트남이 TPP를 활용한 대미 수출 증가 효과 기대는 없어졌지만 2001년 체결한 미국-베트남간의 FTA 체결은 여전히 유효하여 2017년 1-9월 기준으로 미국향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0.1% 증가 하는 등 대미 수출의 증가세는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백만 달러)

국가명	2014	2015	2016	2017 (1-9월)
미국	28,656	33,480	38,464	38,950
중국	14,906	17,141	21,970	22,230
일본	14,704	14,137	14,677	12,320
한국	7,144	8,932	11,419	10,680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2017년 9월 기준

이와 같이 베트남은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써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거대 경제권과의 FTA 협정 체결 노력과 이를 통해 글로벌 벨류 체인의 확대를 기대하여야 할 것이다.

베트남의 FTA체결 현황을 보면 [표 4]와 같다.

그 외 현재 추진 중인 FTA는 베트남-스리랑카, 베트남-터키, 베트남-EFTA 등이 있다. 특히 베트남-EU간 FTA는 EU와 아세안 시장 사이의 교두보 구축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베트남은 양자 간 혹은 다자간의 무역 협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고부가 가치 제품과 글로벌 가치 사슬의 참여에 대한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표 4. 베트남 FTA 체결현황

FTA 체결국	발효일
ACFTA (아세안-중국FTA)	2006. 1. 1
AKFTA(아세안-한국FTA)	2007. 06. 29
AJCEP(아세안-일본 포괄적동반자 협정)	2008. 12. 1
VJEPA(베트남-일본FTA)	2009. 10. 1
AIFTA(아세안-인도FTA)	2010. 1. 1
AANZFTA(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2010. 1. 1
VCFTA(베트남-칠레 FTA)	2014. 1. 1
VKFTA(베트남-한국FTA)	2015. 12. 20
VN-EAEU FTA(베트남-EAEU FTA)	2016. 10. 5
EVFTA(베트남-EU FTA)	'18년 발효 예정

자료원 :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호치민 무역관

세계은행(2016)에 따르면 TPP 발효 시 베트남의 경제는 2035년 까지 GDP가 약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수출액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TPP 역내국으로의 수출은 40% 비중으로 늘어나고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2020년에 연간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다[11].

그러나 미국의 TPP 탈퇴로 TPP가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베트남의 경제 탄력은 그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미국과의 교역은 2001년 체결된 미-베트남 간 FTA 협정으로 수출 비중이 2017년 25.2%를 점유하는 등 현재 시점에서 실질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5. 최근 4년간 미국-베트남 수출입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1-9)
대미 수출액	286	334	384	389
총수출액 대비 비중	19	20.6	21.7	25.2
대미 수입액	63	78	87	68
총수입액 대비 비중	4.2	4.7	4.9	4.4
총 수출액	1,501	1,621	1,766	1,543
총수입액	1,480	1,656	1,741	1,539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2017. 9월 기준

그렇지만 베트남은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높아 세계 경제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주요 수출국인 일본, 중국 등의 낮은 경제 성장률은 해외직접 투자 유치에 (-)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소원해져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RCEP에 적극적으로 매진 할 것으로 예상된다.

TPP가 무산되면 베트남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은 베트남의 섬유 산업이다. 베트남의 섬유 산업은 베트남 2위 수출 품목으로서 베트남의 TPP 가입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산업으로 여겨졌으나 TPP무산 가능성으로 TPP 발효 기대에 따른 투자, 공급 등 베트남에 대한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섬유산업의 최대 시장인 미국에 의한 OEM 공급 주문량 감소와 투자 감소에 따른 고도 기술 습득 지연으로 경제적으로는 마이너스 효과가 예상된다[12].

표 6. 베트남의 대미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명	베트남 총 수출액	대미 수출액	비중
섬유류, 신발	15,502	13,182	85
전자제품	40,319	5,345	13.2
기계류	25,381	1,807	7.1
운송수단류	4,804	864	17.9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2017년 9월 기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베트남 정부는 미국의 TPP 탈퇴에도 TPP 발효를 계속 준비할 것이고 RCEP 등 FTA 협정 체결 확대에 더욱 매진 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효율적인 공급망 체인을 구성하여 고부가가치산업과 부품소재 산업으로 대체 산업을 고도화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으로써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전자, 기계 산업 등의 제조업 투자 유치를 가속화 할 것이고 AEC 회원국 간의 우량 기업 유치에 대한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AIB 출범은 베트남의 인프라 투자 정책을 더욱 촉진할 것이고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투자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 팩터로서 위치를 확보하여 경제 도약의 발판을 삼을 것이다[8].

IV. 한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그 영향

1. 한-베트남 교역 현황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국교 수립이후 한국의 수출 실적 규모는 90배 이상 성장한 392억불 수출(2017.10월 기준)로 우리나라 3위 수출 대상국이다.

표 7.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1-10)
실적	21,088	22,352	27,771	32,630	39,279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2017.10 기준

한국의 베트남향 수출 증가는 미국과 베트남 간에 2001년 체결한 FTA 협정의 발효에 기인한 바 크다. 이는 미국 수출의 우회 통로 확보를 위한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직접 투자 증가로 각종 설비류와 원·부자재 등 90% 이상이 원자재와 자본재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최대 투자국으로써 2017년 7월 까지 누적 기준 545억 달러와 투자 건수로도 누계로 6,130건을 기록하고 있다.

표 8. 대 베트남 주요국 직접 투자규모

(단위:달러)

국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실적	545억	461억	412억	305억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2017년 7월 기준(누적)

한국은 2016년도 유가와 세계경기 하락 등 무역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2017년도 베트남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이상 증가한 것은 베트남에 대한 직접 투자 증가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TPP와 한국의 통상정책

TPP는 한국도 2013년 6월 정부가 '신통상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적극 가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를 통하여 한국은 FTA 허브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런치핀 역할을 위해 RCEP과 함께 TPP와 연계된 역내 지역 통합의 통상전략을 구상하고 있었다[2].

TPP는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활용도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생산기지에서 공급망을 적절히 활용하려면 첫째로 원산지 규정(3장)과 관련된 조항의 활용이다. 즉 TPP 역내에서 조달되고 생산된 것들은 모두 누적 조항을 적용한 원산지 규정으로 이를 적극 활용 하는 것이다. 둘째로 TPP 회원국 간의 협력 및 역량강화(21장)와 개발 협력(23장) 조항이다. TPP는 회원국 특성상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가 큰데 TPP로 회원국 상호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지원하여 개도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또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으로 회원국 간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 뿐만 아니라 개방과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경쟁력과 비즈니스 촉진(22장) 및 중소기업(24장)의 활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쟁촉진·글로벌 규범 수용으로 인한 생산성 증대효과 등 고려시 성장제고 효과가 더 커질 가능성’이란 보도문[13]을 통해 TPP 회원국 서로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보 중요성을 강조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공급망 사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TPP 협정문 제22.2조에 TPP로 인한 회원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참여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14]. 넷째로 관세행정과 무역원활화 조항(5장)은 무역에서 발생 가능한 비용을 최소화하여 역내에서 생산된 생산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그 외 기술 장벽 조항(8장), 규제조화조항(25장) 등을 통해 투명성과 국제 기준에 맞는 절차와 신속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기업의 투명성제고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제18장에서 지적재산권은 WTO의 TRIPS(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보다 강화되어 그 범위가 넓은 수준에서 보호를 하고 있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특성상 국가 간 무역활동에서 원활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TPP는 국가별 공급망 구축의 비교우위에

대한 제도적 변화를 줄 수 있고 한국도 이런 시류에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어 무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으로서는 TPP로 인한 통상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원산지 누적 조항을 채택한 TPP 협정은 TPP 협정 서명국 12개국의 역내 생산 및 공급망을 통합한 활용이 가능한데 이 부분을 통해 한국이 정책 지원과 개발로 수출 시장 다변화와 신규 수요 창출, 글로벌 밸류 체인 등을 고려한 통상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누적 조항은 비원산지 재료로 생산된 생산 공정이 원산지를 충족시키는 공정이 아닐지라도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 결정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이를 통한 TPP 협정의 활용도가 중요할 것이다.

한국이 TPP 협정에 가입을 하지 않고 베트남에서 역외산인 한국산 중간재를 사용하여 생산한다면 TPP회원국 수출 시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하므로 베트남내 중간재 생산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원산지 누적조항의 활용으로 베트남과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공급망을 이용한 TPP 회원국에 수출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내에 기존 투자가 되어있는 섬유산업을 예로 들면 베트남의 섬유 수출로 인한 나라별 부가가치는 베트남을 제외하면 중국, EU, 한국, 일본 순으로 나타나고 베트남이 TPP 등 메가 FTA에 참여시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표 9. 베트남의 섬유수출로 인한 나라별 부가가치

(단위: 백만 달러)

국명	2009	2010	2011
베트남	4,457	5,302	6,480
중국	688	797	738
EU	366	406	451
한국	544	466	404
일본	312	333	345

자료원 : OECD Trade in value Added(TiVA)

특히 섬유산업이 필요한 수입 중간재는 80% 이상이 수출로 환원되고 있어 베트남이 생산 및 공급망 구축에 핵심적 역할로 부상되고 있다. 그럼으로써 베트남 내에서 일관생산체제를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베트남을 중심으로 저렴한 인건비 등 비용 효율성은 높지만 생산성이 낮은 섬유, 피혁, 가구 등의 산업을 글로벌 공급망 구축으로 베트남의 노동집약 산업에 재배치하고 전기, 전자, 정밀기기 등 고생산성이 요구 되는 산업은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과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정책 등을 활용하여 첨단 소재, 중간재 공급망의 재설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함께하여야 할 것이다.

2. 미국의 TPP 탈퇴에 따른 영향과 대응 전략

최대 시장인 미국의 TPP 탈퇴로 TPP 타결국 12개국은 통상환경이 급변하게 되었다. TPP 전체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탈퇴는 실질적으로는 TPP 무산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으로는 한국이 그 동안 체결한 FTA는 양자 간의 협정 체결로 기존 산업 중심의 시장 개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TPP와 같은 메가 FTA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재설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최근 혁신이 주제인 4차 혁명의 추세에 맞추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의 사고 전환으로 혁신형 미래 상품 준비와 서비스, 디지털 비중이 큰 상품 개발로 개방도 높은 교역의 자유화 실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종류의 상품이 어떻게 글로벌 가치사슬로 만들어 질 것이며 우리의 위치 설정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일본, EU 등의 산업과 우리 산업이 특화 된 차별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미래 산업은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TPP가 추구하는 방향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중요시하는 통상 방향으로의 전환인데 [15] 이에 대한 우리의 효과를 높이면 글로벌 전략과 공급망 구축 등 생산기지의 결정 요인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며 제조업에 대한 소프트화와 디지털화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생산 공정이 비교적 단순한 물품이거나 전통적인 제품 등은 교역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IT 기능이 첨가된 혁신형 제

품이거나 서비스, 사물 인터넷 기반의 제품 교역은 증가폭이 커지고 있고 이들 분야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세분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표 10. 한국의 품목별 수출 실적(혁신형/단순형)

(단위 : 백만 달러)

품 목		2014	2015	2016	2017(1-11)
혁신형 제품	디스플레이류	1,022	1,440	1,438	2,702
	가전부품류	888	949	1,121	1,380
	기억장치	2,895	3,613	3,916	4,533
단순형 제품	구형 무선전화기	12,488	10,378	8,156	5,763
	사출고무	1,547	1,293	1,262	1,062
	가족가공	1,582	1,205	1,061	695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러나 TPP에서 말해주는 제도적 환경과 우리나라 규제 수준의 차이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14].

우리가 글로벌 가치 사슬의 주도적 관점을 가지려면 처음에는 해외 직접 투자로 국가 간의 산업 분업이 시작 되겠지만 이후에는 지적 재산권이 중심이 된 정보 유통 사회로 전환되는 시점에 맞추어 관련 제도를 정비 하여야 한다. 우리의 규제는 포지티브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어 사전적 규제에 익숙해 있지만 글로벌화한 환경에서는 사후적 규제 중심으로의 변환이 필수적이다. 사전 규제가 강했던 일본도 사후 규제로 전환하는 추세 [16]이고 우리나라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위치인 베트남도 사후적 규제로 전환되는 중이다[17].

따라서 미국의 TPP 탈퇴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관련 제도의 손질과 미래를 선도적으로 준비한다면 글로벌 가치사슬을 주도적 입장에서 참여 할 수 있다.

또한 공유가치 창출로 현지화 전략과 문화사업,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V(Creating Shared Value) 활동 확대 등 글로벌 가치창출을 위한 진출국과 상생 모델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및 시사점

TPP는 양자간 FTA 규정 보다 글로벌 가치사슬과 공급망 형성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FTA 협정이다.

특히 TPP 회원국 간의 협력 및 역량강화(21장)와 개발 협력(23장) 조항, 경쟁력과 비즈니스 촉진(22장) 및 중소기업(24장)의 조항, 관세행정과 무역원활화 조항(5장), 기술장벽 조항(8장), 규제조화조항(25장) 등은 기존 FTA와는 차별화된 조항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강화가 목적일 수 있는데 한국이 비회원국일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을 고려한 글로벌 공급망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해 있다. 그러나 미국의 TPP 탈퇴로 TPP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 뉴질랜드, 호주와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국가들 주도로 2017년 11월 다낭 회의에서 재합의를 추진하고 있어 한국의 TPP 관련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 좋을 듯하다.

전술에서 예시하였듯이 섬유산업처럼 수직적 분업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구축되고 최종 완제품의 관세가 높은 품목일수록 글로벌 가치 사슬에 포함된 국가가 속한 메가 FTA는 무역 활성화 및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으로써 한국이 TPP에 가입한다면 누적 조항을 활용하여 베트남을 거점으로 TPP회원국 등에 공급 네트워크와 가치 사슬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이 공급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베트남 내에 섬유산업, 전자 산업 등은 일관 생산체계를 위한 한국 기업의 투자는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은 수출의 비중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세계 경제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2017년 이후 자국 경제 내실화로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하면서 환경 규제와 노동생산성, M&A, 농업혁신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런 정책 방향은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에게는 위협적 요소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베트남 경제에 좀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한국기업의 기회일 수 있다.

즉, 환경 규제는 상하수도 등 물 사업과 폐기물 처리 사업의 진출 기회이고 노동생산성 문제는 단순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고급기술과 IT 등이 포함된 기업 진출이 활발할 것에 대비하여 우선적 현지 인력 확보 및 양성으로 현지 진출 예상 기업의 효율적 노동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M&A는 베트남 국영기업의 지분 인수 확대로 투자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고 농업 혁신을 통해 수요가 늘고 있는 친환경 농법,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팜 등 농업과 관련된 신규 투자의 기회도 확대 될 것이다. 또한 베트남의 소비 트렌드 변화로 예상되는 현대화된 유통망과 온라인 쇼핑, 마이카 시대로 증가하는 자동차 소비로 자동차 산업의 진출 확대 등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TPP 탈퇴로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베트남을 거점으로 고급기술과 글로벌 가치사슬이 포함된 신규 사업 기반을 확대하여 TPP 회원국에 진출 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할 수 있다.

베트남은 경제성장 잠재력이 풍부하고 지정학적으로도 핵심적 위치에 있어 향후 아세안의 경제적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외국 자본에 의한 개발 사업 및 사회 인프라 구축 사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TPP, RCEP 등 지역별 메가 FTA가 대세인 현 시점에서 우리는 외형적 측면 보다는 국가 내실화와 국가 수익 창출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 재설정이 필요하다. 글로벌한 분업체계가 더욱 확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가치는 점점 더 증가되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되었다.

글로벌한 통상 규범은 점점 발전하면서 TPP, RCEP 처럼 메가 협정이 트렌드인 만큼 글로벌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기업의 글로벌 가치 상승을 통한 국부 증가에 한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더욱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상협, *미TPP와 중RCEP 사이의 불안한 출발*, 문화일보, 2012.
- [2] 김양희, “RCEP와 TPP의 특성과 향후 전망 및 한국에의 시사점,” *Sungkyun China Brief*, Vol.2, No. pp.102-104, 2014.
- [3] 김인태, “RCEP 13차 협상관련 참여국 동향,” *Global Market Report* 16-038, pp.1-2, pp.14-29,

2016.

- [4] S. Hix, *The Political System of the European Union, 2nd e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pp.235-268, 2005.
- [5]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5. 11. 05.
- [6] World Trade Report, WTO, pp.80-81, pp.113-115, 2014.
- [7] 최낙균, 김영귀,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 국가간의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01, pp.62-68, 2013,
- [8] 코트라, “국제 통상환경 변화와 글로벌 생산기지 변화 동향,” 코트라 Global Market Report 16-028, pp.9-10, 2016.
- [9] 정상현, *TPP, 베트남의 참여 전략*, 하노이코트라 무역관 보고서, 2015.
- [10] 베트남 통계청 2015년 자료, <http://www.gso.gov.vn>
- [11] World Bank Group &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Vietnam, “Vietnam 2035: Toward Prosperity, Creative, Equity, and Democracy,” World Bank Group, pp.8-11, 2016.
- [12] 코트라, “TPP 무산이 베트남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코트라 Global Market Report 17-009, pp.10-11, 2017.
- [13] 산업통상자원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관심 표명,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3.11.29.
- [14] 정인교, “TPP 협정상 신규도입 통상규범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7권, 제3호, pp.90-95, 2016.
- [15] 코트라, “TPP 무산이 베트남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코트라 Global Market Report 17-009, pp.10-11, 2017.
- [16] 이재형, “일본의 일반집중 규제제도: 특징과 시사점,” KDI 연구자료 2007-02, pp.16-19, 2007.
- [17] 수출입은행, *베트남의 투자환경위험 평가보고서*,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6.

저 자 소 개

김 동 호(Dong-Ho Kim)

정회원



- 2008년 8월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석사)
- 2012년 9월 :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경제학박사)
- 2013년 9월 ~ 현재 :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 국제통상, 무역상무, FTA와 공정무역